

노화에 의한 目昏, 耳鳴, 尿不利, 麻痺의 침구치료에 관한 문헌 고찰

박춘을 · 임윤경*

A literature study on acupuncture treatment for blurred vision, tinnitus, difficulty in urination and bi-syndrome in the process of aging

Choon-Eul Park, Yun-Kyoung Yim

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acupuncture treatments for blurred vision, tinnitus, difficulty in urination and bi-syndrome caused by aging process through oriental medical documents.

methods · We researched 21 oriental medical classics for the acupuncture treatments of blurred vision, tinnitus, difficulty in urination and bi-syndrome caused by aging or deficiency.

Results & conclusions

1. Disharmony between yin and yang, disharmony between organs, disharmony of essence, qi, spirit, blood and body fluid are the main features of aging

2. ST36, BL18, BL10, CV24, ST1, BL23 have been most frequently used for acupuncture to treat blurred vision caused by aging. For moxibustion, ST36 has been most frequently used.

3. GB2, TE21, TE17, SI19, TE3 are the mainly used points for acupuncture to treat tinnitus and deafness caused by aging. For moxibustion, LI1 and BL15 have been most frequently used.

4. CV3, CV7, CV4, BL67, LR8, LR4 have been most frequently used to treat difficulty in urination caused by aging

5. LI11, GB34, GB30, LI4, ST36, TE10, TE5, Sama (extra point) have been most frequently used to treat numbness, paralysis and bi syndrome caused by aging

Key words anti-aging, blurred vision, tinnitus, difficulty in urination, bi-syndrome.

I. 緒 論

노화란 개체가 성숙한 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개체에서 진행되는 해로운 변화로, 이런 변화에 의해 개체가 여러 가지 외부도전에 대해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는 과정이다.¹⁾ 인간의 노화란 모든 기관계가 갖고 있는 항상성 여량(homeostatic reserve)이 지속적으로 고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항상성협착(homeostenosis)으로 불리는 이러한 감소는 20대에 벌써 명백히 일어난다. 개개인마다 속도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그 이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각각 기관계의 쇠퇴는 다른 기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와는 무관하게 독립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교신저자 · 임윤경 E-mail : omdwindy@dju.ac.kr
· 채택일 2006년 5월 17일

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식이, 환경, 개인의 습관 뿐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²⁾

한의학에서는 ‘生長化收藏’이라 하여 노화의 한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 『上古天真論』³⁾에서는 “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六七, 三陽脈衰於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 五八, 腎氣衰, 髮墮齒槁; 六八, 陽氣衰竭於上, 面焦, 髮鬢頰白;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藏衰, 形體皆極; 八八, 則齒髮去”라 하였다. 또한 『陰陽應象大論』³⁾에서는 “年四十, 而陰氣自半也, 起居衰矣. 年五十, 體重, 耳目不聰明矣. 年六十, 陰痿, 氣大衰, 九竅不利, 下虛上實, 涕泣俱出矣.”라고 하고 『營衛生會篇』⁶⁾에서 “老者之氣血衰, 其肌肉枯, 氣道澀, 五藏之氣相搏, 其營氣衰少, 而衛氣內伐, 故晝不精, 夜不瞑.”라 하였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신체변화에 관하여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노화가 진행되면 신체는 전반적인陰陽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氣血虛損, 陰襲起病하고 多病相兼, 陰陽失調, 易生突變, 易受外邪, 虛實挾雜의 特性을 가진다.

노화의 증상들로는 痴呆, 健忘, 失眠, 目眩, 心悸, 噎膈, 耳鳴, 耳聾, 小便不禁, 尿不利, 麻木, 痺病, 腰痛, 膝關節 骨痺 등이 있다.^{4,5)} 이것은 노화가 되면서 陰陽의 균형이 깨지고 臟腑가 虛해지며 氣血이 不足해져서 발생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精血이 不足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目昏, 耳鳴, 耳聾, 尿不利, 麻痺 등이 노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다. 이에 歷代 文獻을 통하여 노화에 의한 目昏, 耳鳴, 耳聾, 尿不利, 麻痺의 침구 치료를 고찰하여 항노화에 대한 한의학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1. 항노화에 관한 침구치료에 대하여 黃帝內經을 비롯한 歷代 主要 文獻 21종에서 目昏, 耳鳴,

耳聾, 小便難, 麻痺가 쓰여져 있는 문구 중 虛症을 爲主로 조사하였다. 이 중 虛實 區分이 되어 있지 않은 문헌은 문구 전체를 포함하였다.

2. 目昏은 “目不明”, “目眈眈”, “目暗”, “目眇”를 포함하였고, 小便難은 “尿不利”, “尿澀”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麻痺은 麻木, 痺證, 手足不仁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3. 考察은 歷代 文獻의 內容을 中心으로 現代 文獻을 引用하여 比較整理하고 筆者의 生覺을 添加하였다.

III. 本論

1. 노화의 特徵

1) 陰陽의 失調

『素問·生氣通天論』³⁾에서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兩者不和, 若春無秋, 若冬無夏, 因而和之, 是謂聖度. 故陽強不能密, 陰氣乃絕; 陰平陽秘, 精神乃治; 陰陽離決, 精氣乃絕.”이라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³⁾에서는 “年四十, 而陰氣自半也, 起居衰矣. 年五十, 體重, 耳目不聰明矣. 年六十, 陰痿, 氣大衰, 九竅不利, 下虛上實, 涕泣俱出矣.”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체의 정상적인 활동은 陰陽이 對立하고 統一되는 協助관계의 유지에 비롯하지만, 協助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노화되거나 병이 든다. 즉, 人間이 老年에 이르러 陰陽이 相對平衡이나 協助가 일반 성인에 비해 뒤떨어지고 陰陽失調에 이르게 된다.⁴⁾

2) 臟腑의 失調

노인의 臟腑特徵은 “五臟皆虛”로써, 病邪에 抵抗하는 能力이 低下되고 스스로 調節하고 回復하는 能力도 不足하다. 각 臟腑가 虛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症狀이 나타나며 老人은 전반적으로 臟腑의 機能이 低下되어 있어 한 臟腑의 이상은 다른 臟腑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疾病이 多發한다. 肝은 主疎泄하고 藏血하는데 老人의 경우 肝血, 肝陰이 不足해져서 失眠多夢, 噎氣腹脹, 目眩, 視物昏花 등의 증상이 多發하고 腎은 藏精

하고 主納氣하고 生髓하는데 機能의 이상시 頭暈, 記憶力減退, 耳鳴, 耳聾, 大便滑泄 或 秘訣하는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⁵⁾

3) 精氣神血津液의 失調

精氣神血津液은 臟腑를 營養하고 臟腑의 作用으로 水穀精微에 의해 끊임없이 生化되고 補充되고 있다. 精, 氣, 神, 이 세가지는 人體 生命의 根本이기도 하다. 『靈樞·本神篇』⁶⁾에서 “五藏, 主藏精者也, 不可傷, 傷則失守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死矣.”, “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라 하였고, 『素問·生氣通天論』³⁾에서는 “氣血以流, 腠理以密. 如是則骨氣以精, 謹道如法, 長有天命.”라 하여 精氣神血津液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화가 되면 精氣神血津液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2. 노화에 의한 目昏, 耳鳴, 尿不利, 麻痺에 관한 침구치료

1) 目昏, 目瞑, 眼花, 眼瞶, 眼昏

黃帝內經靈樞⁶⁾, 甲乙經⁷⁾, 備急千金要方⁸⁾, 針灸資生經⁹⁾, 醫學綱目¹⁰⁾, 鍼灸大成¹¹⁾, 鍼灸集成¹²⁾, 舍岩鍼法體系의 研究¹³⁾, 董氏鍼灸學¹⁴⁾, 鍼灸學¹⁵⁾, 針灸治療의 寶鑑¹⁶⁾, 針灸臨床經驗輯要¹⁷⁾ 등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노화와 관련된 目昏(目瞑, 眼花, 眼瞶, 眼昏 등 포함)에 대한 鍼灸治療 빈용혈위는 足三里 肝俞 承漿 腎俞 등이고, 빈용경락은 足太陽經이었으며, 治療方法은 補氣益精을 위주로 하였다 (표1, 표2).

표1. 頻度別 目昏의 鍼灸治療

頻度	治療穴
5回 以上	三里(7 [4]) 肝俞(6 [1]) 天柱(6 [1]) 承漿(5) 承泣(5) 腎俞(5)
3~4回	目窗(4) 攢竹(4) 頷厭(3) 睛明(3) 崑崙(3) 風池(3) 復溜(3) 百會(3) 瞳子膠(3)
1~2回	陶道(2) 絲竹空(2) 頭維(2) 合谷(2) 後頂(2) 陽白(2) 五里(2 [1]) 大椎(1) 承泉(1) 前頂(1) 腦空(1) 養老(1) 曲差(1) 肩中俞(1) 五處(1) 水泉(1)

天膈(1) 胃俞(1) 心俞(1) 內關(1) 大泉(1) 腕骨(1) 中渚(1) 委中(1) 本神(1) 大杼(1) 通谷(1) 曲泉(1) 風府(1) 經渠(1) 太白(1) 太谿(1) 上里(1) 和膠(1) 翳明(1) 目1(1) 目2(1) 下三里(1) 明黃(1) 通關(1) 通山(1) 通天(1) 三黃(1) 四腑一(1)

()안의 수는 刺鍼 취혈 회수, []안의 수는 灸 취혈 회수

표2. 經絡別 目昏의 鍼灸治療

經絡	經穴
手太陰肺經	經渠
手陽明大腸經	合谷, 和膠
足陽明胃經	三里, 承泣, 頭維
足太陰脾經	太白
手少陰心經	
手太陽小腸經	養老, 肩中俞
足太陽膀胱經	肝俞, 腎俞, 心俞, 胃俞, 天柱, 委中, 攢竹, 崑崙, 睛明, 五處, 大杼, 通谷
足少陰腎經	太谿, 復溜, 水泉
手厥陰心包經	內關
手少陽三焦經	中渚, 絲竹空, 天膈
足少陽膽經	頷厭, 風池, 瞳子膠, 陽白, 本神
足厥陰肝經	曲泉
任脈	承漿
督脈	百會, 大椎, 陶道, 後頂, 前頂, 風府
기타	目1, 目2, 下三里, 明黃, 上里, 四腑一, 通關, 通山, 通天, 三黃, 翳明

2) 耳鳴 耳聾

黃帝內經素問³⁾, 黃帝內經靈樞⁶⁾, 甲乙經⁷⁾, 備急千金要方⁸⁾, 針灸資生經⁹⁾, 醫學綱目¹⁰⁾, 鍼灸大成¹¹⁾, 鍼灸集成¹²⁾, 舍岩鍼法體系의 研究¹³⁾, 董氏鍼灸學¹⁴⁾, 鍼灸學¹⁵⁾, 針灸治療의 寶鑑¹⁶⁾, 針灸臨床經驗輯要¹⁷⁾, 鍼灸節要¹⁸⁾, 景岳全書¹⁹⁾, 鍼灸經驗方²⁰⁾, 臨床內科學鍼灸學²¹⁾, 中國鍼灸治療學²²⁾ 등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노화와 관련된 耳鳴·耳聾의 鍼灸治療 빈용혈위는 聽會 耳門 翳風 聽官 中渚 등이고, 빈용경락은 手少陽經과 足少陽經이다. 활용수법은 疏通經絡, 補腎益精의 特性을 가진 穴을 取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頻度別 耳鳴·耳聾의 鍼灸治療

頻度	治療穴
15回 以上	聽會(21)
10~14回	耳門(14) 翳風(14 [1]) 聽官(13) 中渚(12)
5~9回	上關(9) 陽谷(9) 商陽(9 [2]) 百會(9) 後谿(8) 腎俞(8 [1]) 太谿(8 [1]) 合谷(8) 液門(7) 偏歷(7) 前谷(7) 外關(7) 俠谿(7) 天牖(6) 天窗(5) 大陵(5 [1]) 四瀆(5) 腕骨(5) 三里(5)
3~4回	下關(4) 陽谿(4) 關衝(4) 竅陰(4) 顛息(4) 肩貞(4) 風池(4) 駟馬(4) 腎關(4) 頤厭(3) 會宗(3) 絡却(3) 完骨(3) 臨泣(3) 金門(3) 心俞(3 [2]) 行間(3)
1~2回	天容(2) 浮白(2) 禾膠(2) 四白(2) 瘦脈(2) 曲泉(2) 明黃(2) 腕順一(2) 腕順二(2) 肝俞(2) 豐隆(2) 氣海(2) 關元(2) 少海(2) 大杼(2) 客主人(1) 束骨(1) 三陽絡(1) 玉枕(1) 腦空(1) 絕骨(1) 崑崙(1) 通谷(1) 太白(1) 支溝(1) 陽輔(1) 天聽(1) 後聽會(1) 池前(1) 頰內(1) 陵下穴(1) 頭臨泣(1) 和膠(1) 列缺(1) 內關(1) 太衝(1) 左神藏(1) 內庭(1) 三陰交(1) 三皇(1) 三重(1) 地黃(1) 靈骨(1) 下三里(1) 上星 [1]

()안의 수는 刺鍼 취혈 회수, []안의 수는 灸 취혈 회수

표4. 經絡別 耳鳴·耳聾의 鍼灸治療

經絡	經穴
手太陰肺經	列缺
手陽明大腸經	商陽, 合谷, 偏歷, 陽谿, 禾膠
足陽明胃經	三里, 下關, 四白, 豐隆, 客主人(下關), 內庭
足太陰脾經	太白, 三陰交
手少陰心經	少海
手太陽小腸經	聽宮, 陽谷, 後谿, 前谷, 天窗, 腕骨, 天容
足太陽膀胱經	腎俞, 絡却, 金門, 心俞, 肝俞, 大杼, 束骨, 玉枕, 崑崙, 通谷
足少陰腎經	太谿
手厥陰心包經	中渚, 內關
手少陽三焦經	耳門, 翳風, 液門, 外關, 天牖, 大陵,

	四瀆, 關衝, 顛息, 會宗, 瘦脈, 三陽絡, 支溝, 和膠
足少陽膽經	聽會, 上關, 俠谿, 竅陰, 風池, 頤厭, 完骨, 臨泣, 浮白, 腦空, 絕骨, 陽輔, 頭臨泣
足厥陰肝經	行間, 曲泉, 太衝
任脈	氣海, 關元
督脈	百會, 上星
기타	駟馬穴, 腎關, 明黃, 腕順一, 腕順二, 天聽, 後聽會, 池前, 頰內, 陵下穴, 左神藏, 三重, 地黃, 靈骨, 下三里

3) 小便難·小便不利·尿澀

甲乙經⁷⁾, 備急千金要方⁸⁾, 針灸資生經⁹⁾, 鍼灸集成¹²⁾, 舍岩鍼法體系의 研究¹³⁾, 董氏鍼灸學¹⁴⁾, 鍼灸學¹⁵⁾, 針灸治療의 寶鑑¹⁶⁾, 針灸臨床經驗輯要¹⁷⁾, 景岳全書¹⁹⁾ 등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노화와 관련된 小便難(小便不利, 尿澀 등 포함)에 대한 鍼灸治療 빈용혈위는 中極, 陰交, 關元, 至陰, 曲泉, 中封 등이고, 빈용경락은 足太陽經, 足厥陰經, 任脈이며 활용수법은 補益元氣, 通下焦의 特性을 가진 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표5)

표5. 頻度別 小便難의 鍼灸治療

頻度	治療穴
10回 以上	中極(10 [1])
5~9回	陰交(8) 關元(7 [1]) 至陰(5) 曲泉(5) 中封(5)
3~4回	陰谷(4) 陰陵泉(4) 李白(4) 雲白(4) 小腸俞(4 [1]) 橫骨(3) 期門(3) 大敦(3) 曲骨(3 [1]) 太衝(3) 三焦俞(3 [2])
1~2回	會陰(2) 蠡溝(2) 漏谷(2) 承扶(2) 行間(2) 少府(2) 三里(2) 浮間(2) 中膠(2) 膀胱俞(2) 馬金水(2) 馬快水(2) 涌泉(1) 豐隆(1) 大巨(1) 氣衝(1) 委中(1) 委陽(1) 列缺(1) 石門(1) 京門(1) 水道(1) 陰包(1) 地機(1) 大都(1) 五里(1) 經渠(1) 復溜(1) 大赫 [1] 腎俞 [1] 志室 [1] 次膠(1) 氣海(1) 大椎(1) 百會(1) 下三皇(1) 靈骨(1) 海豹(1) 木婦(1) 天樞 [1]

()안의 수는 刺鍼 취혈 회수, []안의 수는 灸 취혈 회수

표6. 頻度別 小便難의 鍼灸治療

經絡	經穴
手太陰肺經	經渠 列缺
手陽明大腸經	天樞
足陽明胃經	三里 豐隆 大巨 氣衝 水道
足太陰脾經	陰陵泉 漏谷 地機 大都
手少陰心經	少府
足太陽膀胱經	至陰 小腸俞 三焦俞 承扶 中膠 膀胱俞 委中 委陽 腎俞 志室 次膠
足少陰腎經	陰谷 橫骨 復溜 大赫
足少陽膽經	京門
足厥陰肝經	曲泉 中封 期門 大敦 太衝 蠡溝 行間 陰包
任脈	中極 陰交 關元 曲骨 會陰 石門 氣海
督脈	大椎 百會
기타	李白 雲白 浮間 馬金水 馬快水 涌泉 下三皇 靈骨 海豹 木婦

4) 麻痺, 麻木, 手足不仁

甲乙經⁷⁾, 針灸資生經⁹⁾, 鍼灸大成¹¹⁾, 鍼灸集成¹²⁾, 舍岩鍼法體系의 研究¹³⁾, 董氏鍼灸學¹⁴⁾, 鍼灸學¹⁵⁾, 針灸臨床經驗輯要¹⁷⁾, 鍼灸經驗方²⁰⁾, 臨床內科學鍼灸學²¹⁾, 中國鍼灸治療學²²⁾ 등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노화와 관련된 麻木(麻木, 痺證, 手足不仁)의 鍼灸治療 빈용혈위는 曲池, 陽陵泉, 環跳, 合谷, 足三里, 天井, 外關, 驕馬 등이고, 빈용경락은 手陽明經, 足陽明經, 足太陽經, 足少陽經이다. 활용수법은 通經活絡의 특성을 가진 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표8)

표7. 頻度別 麻痺의 鍼灸治療

頻度	治療穴
5回以上	曲池(9 [1]) 陽陵泉(9 [1]) 環跳(8) 合谷(8 [2]) 足三里(8 [1]) 天井(5) 外關(5) 驕馬(5)
3~4回	崑崙(4) 太谿(4) 肩中(4) 陽關(4) 委中(4) 肩髃(4 [1]) 手三里(4 [1]) 中腕(4 [1]) 中封(4) 陽輔(4) 絕骨(4) 次膠(4 [1]) 巨虛(3) 陽交(3) 承筋(3) 支溝(3 [2]) 勞宮(3) 經渠(3) 上廉(3) 陰陵泉(3) 魚際(3) 肝俞(3) 上膠(3) 丘墟(3) 八邪(3)
1~2回	商丘(2) 少商(2) 風府(2) 腰俞(2) 犢鼻(2) 肩貞(2) 列缺(2) 腕骨(2) 臨泣(2 [1]) 陽谿(2) 至陰(2) 膀胱俞(2) 百會(2 [1]) 髀關(2) 京骨(2) 三陰交(2) 命門(2) 腎俞(2) 大椎(2) 肩髃(2) 中膠(2) 解谿(2) 太白(2) 復溜(2) 伏兔(2) 八風(2) 上三黃(2) 四縫(2)

五嶺(2) 內關(2) 三叉穴(2) 下廉(1) 陽間(1) 內庭(1) 臑會(1) 中衝(1) 少衝(1) 附分(1) 肘髃(1) 中都(1) 浮郄(1) 白環俞(1) 風市(1) 神門(1) 太淵(1) 少府(1) 大杼(1) 陰市(1) 箕門(1) 血海(1) 承山(1) 氣海(1) 十二井穴(1) 梁門(1) 太衝(1) 肩中俞(1), 巨骨(1) 臂臑(1) 天府(1) 俠白(1) 後谿(1) 太陽(1) 攢竹(1) 脾俞(1) 交信(1) 腎關(1) 人皇(1) 中九里(1) 上曲(1) 雲白(1) 次白(1) 通天(1) 三皇(1) 四海(1) 新伏兔(1) 上風市(1) 前風市(1) 少海(1) 然谷(1) 行間(1) 腰(1)~5夾脊(1) 殷門(1) 臚中(1) 肩髃 [1] 大巨 [1] 身柱 [1] 天柱 [1] 天膠 [1] 大腸俞 [1] 陽池 [1]
--

()안의 수는 刺鍼 취혈 회수, []안의 수는 灸 취혈 회수

표8 頻度別 麻痺의 鍼灸治療

經絡	經穴
手太陰肺經	經渠 魚際 少商 列缺 太淵 天府 俠白
手陽明大腸經	曲池 合谷 肩髃 手三里 上廉 陽谿 肩髃 下廉 肘髃 巨骨 臂臑 陽池
足陽明胃經	足三里 巨虛 犢鼻 髀關 解谿 伏兔 內庭 陰市 梁門 大巨
足太陰脾經	陰陵泉 商丘 三陰交 太白 箕門 血海
手少陰心經	少衝 神門 少府 少海
手太陽小腸經	肩貞 腕骨 肩中俞 後谿
足太陽膀胱經	崑崙 委中 次膠 承筋 肝俞 上膠 至陰 膀胱俞 京骨 腎俞 中膠 附分 浮郄 白環俞 大杼 承山 攢竹 脾俞 通天 殷門 天柱 大腸俞
足少陰腎經	太谿 復溜 交信 然谷
手厥陰心包經	勞宮 內關 中衝
手少陽三焦經	天井 外關 支溝 臑會 中都 天膠
足少陽膽經	陽陵泉 環跳 陽關 陽輔 絕骨 陽交 丘墟 臨泣 風市
足厥陰肝經	中封 太衝 行間
任脈	中腕 氣海 臚中
督脈	風府 腰俞 百會 命門 大椎 身柱
기타	驕馬 肩中 上三黃 四縫 五嶺 腎關 人皇 中九里 上曲 雲白 次白 三皇 四海 新伏兔 上風市 前風市 八邪 八風 太陽 十二井穴

IV. 考察

노화란 인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陰陽이 失調되고 臟腑의 機能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한다.⁴⁾ 노화는 臟腑機能이 衰

退하는 것으로 『靈樞·天年』⁶⁾에서 “五十歲, 肝氣始衰, …… 六十歲, 心氣始衰, …… 七十歲, 脾氣虛, …… 八十歲, 肺氣衰, …… 九十歲, 腎氣焦, …… 百歲, 五藏皆虛”라 하였다. 또한 劉完素²⁴⁾는 “五十至七十歲者, 和氣如秋, 精耗血衰”라 하여 노인의 생리변화의 중요 특징으로 精血의 감소를 지적하였다. 精血은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로 ‘精’은 주로 生長發育하게 하고 ‘血’은 안으로 臟腑를 營養하고 밖으로 皮毛筋骨을 濡養한다. 精血은 상호적으로 작용하며 변화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가 왕성할 때 健康長壽를 유지할 수 있는 重要條件이 된다. 나이가 들에 따라 精血은 減少되고 臟腑 및 經脈, 五官九竅, 四肢를 濡潤滋養할 수 없게 되며, 노화에 의하여 神氣가 점차 소모되고 陰陽俱衰한다.

노화의 증상들로는 痴呆, 健忘, 失眠, 目眩, 心悸, 噎膈, 耳鳴, 耳聾, 小便不禁, 尿不利, 麻木, 痺病, 腰痛, 膝關節 骨痺 등이 있다.^{4,5)} 특히 노인에게서는 精血不足으로 인한 目昏, 耳鳴, 耳聾, 尿不利, 麻痺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저자는 문헌을 통하여 노화에 의한 目昏, 耳鳴, 耳聾, 尿不利, 麻痺의 鍼灸治療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노화와 관련된 目昏(目瞶, 眼花, 眼瞶, 眼昏 등 포함)에 대한 鍼灸治療는 足三里 肝俞 承漿 腎俞 등이 가장 빈용되었고, 灸法은 足三里, 肝俞, 天柱, 五里 등이 多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經絡은 足太陽經이었으며, 治療方法은 補氣益精을 爲主로 하였다(표1, 표2). 目昏은 주로 腎精이 衰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萬病回春』²⁵⁾에서는 久病으로 視物昏淸하는 것은 腎의 眞陰이 弱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證治準繩』²⁶⁾에서 目的 內外에 별다른 異常이 없이 視昏渺夢昧淸하는 것은 神勞, 血少, 元氣虛弱, 元精虧損으로 발생된다 하였다 문헌에 나타난 目昏의 鍼灸治療에서는 두면부의 近位穴들 외에 肝俞, 腎俞, 復溜 등의 穴이 多用되고 있었다. 肝俞와 腎俞는 足太陽 膀胱經에 속하는 肝과 腎의 背俞穴로서 肝腎虛를 補하는데 多用되며, 復溜는 足少陰腎經에 屬한 自經補穴로 補腎하여 目昏에 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화에 의한 肝腎의

精血을 補함으로써 目昏을 治하고자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足三里는 가장 빈용된 經絡로 理脾胃, 調中氣, 通調經絡, 扶正培元 함으로써 노화에 의한 氣血虛損, 正氣不足을 북돋아 目昏을 治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足三里, 肝俞에 灸를 하여 扶正培元, 補肝하여 目昏을 治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노화와 관련된 耳鳴·耳聾에 대한 鍼灸治療는 聽會 耳門 翳風 聽官 中渚 등이 가장 빈용되었고, 灸法은 商陽, 心俞 腎俞, 太谿 등에 多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經絡은 手少陽經과 足少陽經이었으며, 治療方法은 疏通經絡, 補腎益精을 爲主로 하였다. (표3, 표4). 耳鳴·耳聾은 腎精虧虛와 經絡阻滯로 發하는데, 『聖濟總錄』²⁷⁾에서는 腎氣가 이미 虛한 狀態에서 風邪가 侵入하거나 또는 思慮勞心으로 氣脈이 內結되어 疏通이 되지 않아 耳內가 渾焯하며 氣가 相擊하여 耳鳴이 나타나고, 蟬鳴이 오래되면 重聽이 發生된다고 했다. 『素問玄機原病式』²⁸⁾에서 耳鳴과 耳聾은 外感火熱, 五志化火, 腎水虛冷, 腎陰不足으로 相火가 上炎되어서 생긴 火로 발생된다고 하였다. 문헌에 나타난 耳鳴·耳聾의 침구치료에서는 耳部位의 近位穴 외에 中渚 등이 多用되었다. 中渚는 三焦經의 俞穴로 自經을 補하고 활성화시켜 三焦氣化 作用을 원활히 하고 近位部 穴을 取하여 疏通經絡하게 하여 耳鳴·耳聾을 治하고자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太谿, 腎俞 등에 灸하였는데, 太谿는 足少陰經의 原穴로서 灸를 시행하여 元陽을 壯하고 腎俞는 足少陰經의 背俞穴로 益水壯火하여 耳鳴·耳聾을 治하려 함을 알 수 있었다.

노화와 관련된 小便難(小便不利, 尿澀 등 포함)에 대한 鍼灸治療는 中極, 陰交, 關元, 至陰, 曲泉, 中封 등이 가장 빈용되었고, 灸法은 關元 三焦俞 등이 多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經絡은 足太陽經, 足厥陰經, 任脈이었으며, 治療方法은 補益元氣, 通下焦을 爲主로 하였다.(표4, 표5). 小便難은 陰虛, 氣機失調로 인해 多發한다. 『東醫寶鑑』²⁹⁾에서 陰虛하면 소변보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문헌에 나타난 小便難의

鍼灸治療에서는 中極, 陰交, 關元, 至陰, 曲泉, 中封 등이 다용되었다. 中極, 陰交, 關元은 任脈의 穴로 諸陰之海로서 手足三陰經의 陰氣를 總任한다. 至陰은 膀胱井穴로 膀胱水와 관련되며 宣下焦氣機한다. 曲泉은 利膀胱, 通下焦하고 中封은 疏肝通絡하여 小便難에 응용하였다. 따라서 노화에 의한 陰虛를 補하고 下焦의 氣運을 疏通시킴으로서 小便難을 治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關元和 三焦俞 등을 灸하였는데, 關元은 足三陰經與任脈之會穴로서 灸를 시행하여 培腎固本, 分別清濁하고 三焦俞는 三焦의 俞穴로 調氣化, 利水濕하여 小便難을 治하려 함을 알 수 있었다.

노화와 관련된 麻木(麻木, 痺證, 手足不仁 등 포함)에 대한 鍼灸治療는 曲池, 陽陵泉, 環跳, 合谷, 足三里 등이 가장 빈용되었고, 灸法은 陽陵泉, 合谷 등이 多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經絡은 手陽明經, 足陽明經, 足太陽經, 足少陽經이었으며, 治療方法은 通經活絡을 爲主로 하였다. (표7, 표8) 麻痺는 氣血虛弱, 經絡阻滯로 인해 나타난다. 氣血이 四肢로 流注하여 筋을 濡養하는데 氣血이 虛弱하여 氣血供給이 失調되며 經絡이 阻滯하여 氣血이 供給되지 않아 麻痺가 나타난다. 문헌에 나타난 麻痺의 鍼灸治療에서는 曲池, 陽陵泉, 環跳, 合谷, 足三里 등의 穴이 多用되고 있었다. 曲池는 祛風濕, 調氣血하고 陽陵泉은 八會穴 중의 筋會로 舒筋脈하여 근육질 환에 다용된다. 또한 環跳는 通經活絡하는 효능이 있어 經絡阻滯로 인한 질환에 사용한다. 合谷은 四關穴의 하나로 通經活絡에 다용하고, 足三里는 理脾胃, 調中氣, 通調經絡, 扶正培元한다. 따라서 노화에 대해 補氣血, 疏通經絡하여 氣血을 補하고 經絡을 疏通시킴으로써 麻痺를 治하고자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陽陵泉과 合谷에 灸하여 舒筋脈, 通經活絡하여 麻痺를 治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노화에 의한 증상의 치료를 위한 침구의 활용은 노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陰陽, 臟腑, 精神氣血의 不均衡 및 消耗에 대해 補氣益血의 治法을 기본으로 하고, 目昏에서는 益精을 더

욱 증시하였고, 耳鳴·耳聾과 麻痺에서는 疏通經絡을 중히 여겼으며, 小便難에서 補陰에 중점을 두었다.

V. 結 論

노화에 의한 目昏, 耳鳴·耳聾, 小便難, 麻痺 등에 대한 鍼灸治療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노화의 病機는 陰陽의 失調, 臟腑의 失調, 精氣神血津液의 失調를 특징으로 한다.
2. 노화에 의한 目昏에는 三里 肝俞 天柱 承漿 承泣 腎俞 등이 多用되었으며, 灸法의 경우 三里를 多用했다.
3. 노화에 의한 耳鳴·耳聾에는 聽會 耳門 翳風 聽官 中渚 등이 多用되었으며, 商陽, 心俞 등에 灸治療하였다.
4. 노화에 의한 小便難에는 中極 陰交 關元 至陰 曲泉 中封 등이 多用되었다.
5. 노화에 의한 麻痺에는 曲池 陽陵泉 環跳 合谷 足三里 天井 外關 駟馬 등이 多用되었다.

VI. 參考文獻

1. 박찬일 외, 병리학 5판, 고문사, 서울, 2003, p. 310
2. 선희식 외, 해리슨 내과학, MIP, 서울, p. 38
3. 金達鎬 編著, 黃帝內經素問, 醫聖堂, 서울, 2001, p. 14, 72, 78, 136, 272, 274, 316
4. 張問渠 外, 老年病 中醫治療學,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2000, p. 3, 9~11
5. 蔡禹錫, 東醫老人病學, 醫聖堂, 서울, 2001, p. 683~688
6. 金達鎬 編著, 黃帝內經靈樞, 醫聖堂, 서울,

- 2002, p. 238, 506, 553, 629, 668
7. 皇甫謐：針灸甲乙經校釋，醫聖堂，서울，1993，p. 1198, 1199, 1201, 1242, 1440~1443
 8. 孫思邈：備急千金要方，大城出版社，서울，1992，p. 194, 195, 905, 915, 924, 925, 926
 9. 王執中：針灸資生經，一中社，서울，1991，p. 제4 25, 제5 14~16, 제6 6~7
 10. 樓英：醫學綱目，中國中醫藥出版社，北京，1996，p. 243, 244
 11. 楊繼洲：鍼灸大成，침코리아，서울，2002，p. 336, 339
 12. 廖潤鴻：鍼灸集成，北京市新華書店，北京，1986，p. 권2 39, 40, 54
 13. 趙世衡：舍岩鍼法體系的研究，成輔社，서울，1986，p. 315, 317, 340, 369
 14. 최무환：董氏鍼灸學，一中社，서울，2003，p. 299, 304, 313, 314, 357, 371, 379, 381, 418
 15. 全國韓醫科大學校針灸經穴學教室：鍼灸學，集文堂，서울，1992，p. 1201, 1221, 1283~1285
 16. 代田文誌：針灸治療의 寶鑑，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社，대구，1964，p. 610, 611, 834~836
 17. 焦國瑞編：針灸臨床經驗輯要，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1，p. 123, 259~265, 273, 302, 323
 18. 高武：鍼灸節要，一中社，서울，1992，p. 권2 下 23, 26, 35
 19. 張景岳：景岳全書，鼎談，서울，1999，p. 520, 521
 20. 許任：鍼灸經驗方，鼎談，서울，2003，p. 109~115, 177, 179
 21. 鍼灸研究中心主編：臨床內科學鍼灸學，武陵出版社，台北，1973，p. 673~676, 678, 679, 683~686, 690~692, 715~720
 22. 邱茂良：中國鍼灸治療學，江蘇科學技術出版社，江蘇省，1988，p. 228~236, 346~355, 531~543, 579~582
 23. 劉建華：老年病 辨病專方治療，人民衛生出版社，北京，2000，p. 6~7
 24. 劉完素，病機氣宜保命集，木과 土，서울，2000，p. 129
 25. 龔廷賢，萬病回春，癸丑文化社，서울，1977，p. 69
 26. 王肯堂，證治準繩 卷3，中國中醫藥出版社，北京，1997，p. 248
 27. 趙佶，聖濟總錄，醫聖堂，서울，1993，p. 1960
 28. 曹炳章，中國醫學大成績集. 17 中 素問玄機原病式，上海科學技術出版社，p. 71
 29. 許俊 東醫寶鑑，法仁文化社，서울，2002，p. 400